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전 홍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만 2세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2018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유 은 혜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만 2세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전 홍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유 은 혜

인 준 서

유 은 혜 의 석 사 학 위 논 문 으 로
인 준 함

2018년 5월

심 사 위 원 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 신 여 자 대 학 교 대 학 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만 2세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은 어떠한가?
2.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S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2세 영아 312명으로, 영아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을 위해 Schaefer(1959)가 개발한 것을 배문주(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에서 개발한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호인(2010)의 ‘2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평정 척도’ 중 일부인 자기조절부분을 사용하였고 영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nett(1991)이 유아용으로 제작한 놀이성 척도를 윤상인(2011)이 영아용 척도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 간 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 자율, 통제, 거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중간정도의 값(1.83점/4점)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영아놀이성의 하위요인은 신체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두 중간 이상의 값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부적 상관관계로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자기조절력, 놀이성과 정적 상관관계로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과 놀이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높이는 정적 상관관계로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 신체적 자발성과 부적 상관관계로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신체적 자발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유머감각은 정적 상관관계로 거부적, 통제적 태도가 높아지면 유머감각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추가되었을 때 자기조절력에 영향이 나타났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영아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에 낮은 영향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유머감각에 영향을 주었지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1) 부모의 양육태도	5
2)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5
3) 영아의 자기조절력	6
4) 영아의 놀이성	6
II. 이론적 배경	7
1. 부모의 양육태도	7
1)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념	7
2) 부모 양육태도의 분류	8
3) 부모의 양육태도 관련 선행연구	10
2. 영아와 스마트폰	12
1) 스마트폰의 특성 및 영향	12
2)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선행연구	13
3. 영아의 자기조절력	16
1) 자기조절력의 개념	16
2) 영아의 자기조절력 관련 선행연구	19

4. 영아의 놀이성	20
1) 놀이성의 개념	20
2) 놀이성의 하위요인	22
3) 영아의 놀이성 관련 선행연구	24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연구도구	27
1) 부모의 양육태도	27
2)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28
3) 영아의 자기조절력	29
4) 영아의 놀이성	29
3. 연구절차	30
1) 예비연구	30
2) 본 연구	31
4. 자료분석	31
IV. 연구결과 및 해석	33
1.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	33
2.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간의 관계	34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38
1)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38
2)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놀이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39
V. 논의 및 결론	43
1. 논의	43
2. 결론 및 제언	4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26
<표 2>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 하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28
<표 3> 놀이성 척도의 정의, 문항 및 신뢰도 계수	30
<표 4>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	34
<표 5>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과의 상관관계	37
<표 6>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39
<표 7>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놀이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물건이 되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찾기 위한 지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장을 보기도 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접구매도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쇼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담영, 2017). 국내 모든 은행들이 각 은행 자체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하여 bankin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조유리, 2013)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카드 기능이 담겨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편리한 기능이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성인 뿐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탑재하고 있다. 접근이 용이하고 유아들의 흥미를 이끄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강지은, 2016; 임순희, 2015) 유아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화, 동요,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단한 조작에 익숙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혜영, 2016). 멀티미디어북(스마트폰용 교육 콘텐츠)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 자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홍수민, 2011). 유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종료 기능을 탑재한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과 교감형 연출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기도 한다(엄선경, 2016; 한영심, 2016).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의 순기능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역기능은 중독인데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에 무기력하도록 하고 수업 몰입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고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훈, 2018; 김은경, 2018; 김희정, 2018).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증을 높이고 건강상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18; 원소희, 2018).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영아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들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놀이를 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있었다(권연정, 2014; 김주아, 2013). 부모들은 또한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기존의 놀이나 학습 방식에 흥미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모아라, 2017; 류미향, 2014).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영유아들일수록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등 모든 면에서 발달 수준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은 정신적인 건강과 자기조절력, 또래 유능성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스마트폰의 역기능이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희, 2017; 이수기, 이현경, 2014; 최미영, 2016; 최정숙, 2014).

선행연구들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성은 높아지고 애정적,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금정연, 2017; 이한나,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

시켰고 거부적, 통제적 태도는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장솔지, 2017).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와도 연결되고 있다.

영아기는 사회성 발달의 초기 단계로 영아기의 사회정서발달은 성인이 된 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나양균, 2006; 이화용, 2012). 사회정서발달 중 자기조절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다(김병화, 2017).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기조절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황태경(2013)의 스마트기기 몰입 경향성과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낮아지고, 몰입경향성이 낮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높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의 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 2017).

한편, 스마트폰 사용은 영아의 놀이성과도 관련이 있다. 영아가 밖에서 놀이하는 시간보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과 사회적 자발성이 낮게 나타나 스마트폰의 과한 사용과 부적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정연, 2017; 김윤나 박희숙, 2016). 즉 스마트폰을 과한 사용은 영아의 놀이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놀이를 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놀이를 하며 발달되는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등의 놀이성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연구는 실태와 인식이 대부분이고 스마트폰을 사용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아기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영아의 발달적 특성상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화용, 201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놀이를 하기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영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영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람이 부모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량에 관련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결정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 양육태도와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은 어떠한가?
2.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태도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원영, 1983).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범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애정적 태도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녀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태도이다. 거부적 태도는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의 감정 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자율적 태도는 자녀에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녀의 독립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제적 태도는 자녀에게 행동적으로 규율을 설정하여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 자녀가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이다.

2)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정도’ 라는 의미는 영아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3) 영아의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은 영아가 영아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제시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목표에 맞게 활동을 변화시키며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수용되는 행동을 생성하는 능력이다(Kopp, 1989; 이미숙, 2016 재인용).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력은 영아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력은 인지조절과 정서조절로 나눌 수 있다. 인지조절은 영유아가 행동을 할 때 계획, 점검, 평가하고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이다. 정서조절은 스스로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까지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4) 영아의 놀이성

놀이성은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겪는 긍정적·부정적인 다양한 감정과 목적의 성패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놀이성향이자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놀이의 질과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유애열, 1994). 본 연구에서 놀이성은 영유아의 성격적 차원으로, 놀이의 질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기이자 성향으로 정의한다.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보이는 신체적 활동이고 사회적 자발성은 영유아가 속한 놀이집단에서 함께 놀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융통적인 생각을 해내는 정도이고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를 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유머감각은 우습고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잘 하고 잘 웃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양육태도

1) 부모 양육태도의 개념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출생 후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협의의 측면에서 양육태도는 특정 양식 안에서 부모 혹은 부모를 대행하는 사람이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이자 행동이다(김경선, 2006; 안현숙, 2002). 이는 부모가 영유아에게 반응을 보이는 내적 행동성이 포함되며 영유아에게 반응하는 방식과 영유아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김경선, 2006; 남상인, 1983; 한중혜, 1980). 또한 부모 양육태도는 사회·문화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특징적인 태도나 특정한 경향성을 지니며, 양육자의 영유아에 대한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국형윤, 2012; 이영주, 2006).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양육태도는 크게 문화양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을 구성하고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사회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배문주, 2005). 이러한 입장들은 부모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과 그 사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양육자의 태도나 행동의 측면에서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시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성격과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일관성이 있다는 특징

이 있다(이연실, 2016). 부모는 영유아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는 존재로, 부모가 행하는 사회적 행동은 부모가 성장해온 과정과 성격,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영유아는 부모의 사회적 행동의 모델링을 통하여 부모에게서 배운 사회적인 역할은 영유아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받는다(이은진, 2011; 이주화, 2015).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양육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고 자녀를 지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미현, 2003).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가 경험하게 될 환경을 결정하며 자녀가 경험하는 환경은 정서지능에까지 영향을 준다(황정련, 2016). 이처럼 양육태도는 양육자에게서 내현적,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이자 양육자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으로 양육자와 영유아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 양육태도의 분류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이론적인 개념과 연구결과들이 나타내는 바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질 수 있다(김성일, 1996).

이원영(1983)에 의하면, Symonds(1949)가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처음 체계화했다. ‘지배’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복종’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맹목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갖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적대적인 감정까지도 보인다, ‘수용’은 자녀를 과보호하고 자녀의 의지에 간섭하여 자녀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 부모가 해주려고 한다. Symonds의 양육행동 모형은 양육태도

의 시초가 되어 처음 유형화 하였지만 정신분석학의 임상적 사례를 통해 양육행동을 설명하였고 부정적이게만 설명되었기 때문에 정상적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이은영, 2004).

이에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까지의 발달과 부모 양육태도의 장기적, 종단적 연구로 가설적 원형 모형을 개발하고 여러 변인들 간 상호 관계를 밀접한 요인과 대립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변인의 위치에 애정-거부, 자율-통제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나타냈다(이은미, 2006 재인용).

이원영(1983)은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 Schaefer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의 네 가지 태도로 분류하였다. 이원영(1983)에 따르면 애정-자율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민주적이고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임하는 것은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고 문제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 풀어나가는 관계로 자녀에게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행동에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말한다. 애정-통제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지님과 동시에 행동에 제한을 많이 두는 것으로 지나치게 보호적이고 소유적인 태도를 갖고 자녀가 행하는 행동에 자율적이기 보다는 간섭을 자주하고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면 부모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언어적 통제가 주어지거나 신체적인 체벌과 심리적인 통제를 하면서 자녀 삶에 있어 부모의 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거부-자율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갖지 못하고 자녀를 수용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녀가 하는 행동에 있어 지나친 자유를 가진 것으로 이러한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관심이 없고 거리감을 가지며 온정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갖는 경우가 거

의 없다. 거부-통제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애정을 갖고 수용하는 모습이 없고 체벌이나 심리적인 제한으로 독재적인 형태의 양육태도로 자녀의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원영(1983)의 양육태도 모형에 근거하여 연구한 조혜정(2006)의 연구에서 정의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중심적인 태도로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녀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훈육하고 적절한 칭찬을 하는 태도이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체벌하는 태도로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녀를 부담으로 여긴다. 자율적 태도는 자녀에게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자녀의 독립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통제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적으로 규율을 설정하여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 자녀가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이다.

3) 부모 양육태도 관련 선행연구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해서는 주로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아버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온정적,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 태도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친사회적 적응, 긍정성, 일과 적응 간에 정적 관계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온정적,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일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강순덕, 2014; 고영광, 2017).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

도, 자율적 태도는 어린이집 적응과 정적 관계로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영아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일과에 적응을 잘하며 초기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선, 2009; 이미희, 2010; 이지현, 2010; 한재영, 2012; 허영순, 2010).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영아가 또래에게 방해적인 행동을 적게 하도록 하고 영아의 놀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인지적 자발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영, 손수민, 2014; 심용분, 2011; 조현희, 2017).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높게 나타날 때 영아의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나고 애정적, 자율적 태도가 낮으면 영아의 정서불안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영, 2005; 김향, 2013).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태도는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강민정, 2013).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하루일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영아의 자아상태와 긍정적 감정, 친사회적 행동이 낮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선, 2009; 양은주, 2010; 한재영, 2012).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 부정적인 관계로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아의 문제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김보영, 2005; 이미희, 2010; 진경숙, 2010).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발성이 낮게 나타났고 영아 또래작용의 순응적 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가 낮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인 순응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용분, 2011; 조현희, 2017).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어린이집의 초기 적응, 또는 일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래관계와 놀이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어린이집의 초기 적응, 또는 일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영아의 또래 관계와 놀이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와 스마트폰 사용

1) 스마트폰의 특성 및 영향

스마트폰(Smart Phone)은 휴대전화(Cell Phone)와 개인휴대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의 장점들을 합한 것으로 휴대전화의 기능과 일정 관리와 인터넷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프로그램, 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두산백과, 2016).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이용자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편리한 서비스나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은 이전의 휴대전화와 차이가 있다(박지선, 2012).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의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오윤경, 2016).

스마트폰은 성인 뿐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탑재하고 있다. 유아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내용적 특성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유아가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유아의 특성에 맞는 애니메이션이나 색채, 그래픽 등의 구성이 잘 되어 있어 유아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임순희, 2015). 부모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종이로 된 동화책을 멀티미디어북

으로 제작해주면 영유아들은 동화 화면에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흥미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시간이 늘어나며 영유아의 흥미에 맞게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축적하는 등 개인의 흥미에 맞춰서 활용이 가능하다(심혜영, 2003; 이나혜, 2014; 홍수민, 2011). 또한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종료 기능을 탑재한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기도 하였다(한영심, 2016). 또한 일방적 피드백이 아닌 교감형 연출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기도 하는 등(엄선경, 2016) 영유아가 스스로 활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중독, 과몰입, 과다사용 등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지나친 몰입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줄거나 중단 된다면 정신적인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껴 강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박용민, 2011). 스마트폰 중독은 과도하게 몰입하여 초조함과 불안감이 생기고 몰입 상태를 통제할 수 없어 주위에 피해를 주며 스마트폰 의존 행동의 빈도가 높고 이용량이 늘어나며 금단 현상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불편과 문제를 일으킨다(강희양, 박창호, 2012; 안희준 외, 2013; 황하성 외, 2011). 즉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에 과하게 몰두하여 사용을 자제할 수 없는 상태로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지선, 2012; 서창민, 이종훈, 2012).

2)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선행연구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스마트폰 제작 회사들의 다양한 키즈

폰 개발 및 영유아용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등을 미루어보아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에 따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유아 가정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34.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들의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는 0.84세로 나타났다(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아의 스마트폰 일일평균이용시간은 주중과 주말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주중에는 32.53분, 주말에는 37.19분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효국, 2013; 유은정, 2014;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처음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로,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처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유아가 혼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은정 2014; 이원석, 성영화, 2012;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할 때 허용여부를 묻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영아의 경우 가족이 먼저 제공하는 경우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스마트폰 제공 이유로 자녀가 스마트미디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영아와 유아 모두 시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제공하거나 어머니가 집안일을 할 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황태경, 2013).

영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필요하다’고 한 응답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이영임, 2013). 영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필요할 때는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고 ‘사용이 좋지 않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다(류미향, 2014). 하지만 사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사용 지도에 대하여 ‘보통이다’와 ‘잘 모르겠다’ ‘잘 안다’의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류미향, 2014).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면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감소하고 중독이 낮게 나타나며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희, 2013; 장솔지, 2017; 황승일,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면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중독 경향성이 높아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김정아, 2017; 나용선, 2013; 장솔지, 2017).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스마트폰 과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발달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나쁠수록 영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높아졌으며 사용 시간이 높게 나타날수록 정서지능 및 하위요인인 자기정서 조절, 타인정서인식, 타인정서조절이 낮게 나타났고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김혜영, 2016; 이수기, 이현경, 2014; 최미영, 2016; 현소리, 2016).

스마트폰 몰입과 자기조절력은 부적상관이 나타나 자기조절력이 낮을수록 스마트기기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사용정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 즉 자기조절력이 낮게 나타났다(황태경, 2013; 임연정, 2016). 이용 시간이 높으면 자기조절력이 낮게 나타났고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능력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낮아지면 공격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자기조절력이 높으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중독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순, 2015; 손명원, 2014; 유수연, 2015; 한미경, 2015).

영유아는 놀이를 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스마트폰 사용

은 놀이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으면 놀이성이 낮게 나타나고 사회적 자발성, 신체적 자발성 역시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자발성이 낮은 경우 밖에서 놀이하느 시간보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마트폰 사용과 영유아의 놀이성은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윤나, 박희숙, 2016; 김정연,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정적 측면의 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이는 스마트폰이 분명 순기능을 갖고 있으나 인터넷, 게임, 컴퓨터 중독 등과 연결되면서 영유아 역시 중독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부터 디지털 생활환경에 익숙하고 디지털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하는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영유아(박완기, 2010)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인다.

3. 영아의 자기조절력

1) 자기조절력의 개념

자기조절력은 자아통제 혹은 자기통제, 독립심, 자기관리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중 자기조절과 자기통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양옥승, 이정란, 2003).

자기조절력에 대하여 Kopp(1989)는 영유아가 환경적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제시되는 상황의 목표에 맞게 활동을 변화시키며 사회적으로 승인, 수용되는 행동을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이미숙, 2017 재인용).

자기조절력은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등 타인과 마주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여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며 발생한 문제를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원성두 외, 2015; 이정란, 2003). 또한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인지와 인식을 사용하여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미리 막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유보하거나 억제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이자 문제 상황에 대해 충동적이나 즉각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정은주, 2005; 허정경, 2003).

Kopp(1982)는 자기조절은 연속적인 발달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영유아기의 자기조절발달모형을 제시하였다(정은주, 2005 재인용). 첫 번째는 신경 생리적 조정단계로(출생~2,3개월) 영아는 손가락을 빠는 행동 같이 자신을 진정시키는 행동을 나타내고 신경 생리학적, 반사적인 적응을 보인다. 두 번째는 감각·운동적 조정단계(2,3개월~9,12개월)로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다가가 손에 쥐는 능력처럼 자발적이고 비반사적 방식으로 운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통제의 단계(9-12개월~18개월 이상)로 특정 상황에서의 사회적 요구에 대해 막연히 인식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인지적 측면의 양적, 질적인 변화의 결과이다. 네 번째는 자기통제의 단계(18개월~24-36개월)로 표상 및 기억 능력이 발달해 양육자의 의도를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자기조절단계(36-40개월 이상)로 상황에 따른 반응을 유연하게 나타내고 의도적으로 자기반성과 책략을 사용하는 단계이다.

자기조절력을 인지 조절의 측면으로 정의한 Bodrova와 Leong(1996)은 인지조절에 대하여 행동을 하기 전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계획, 점검, 평

가, 선택하는 복잡한 인지적인 조작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양옥승, 2006 재인용). 단순히 상황적 요구에 맞게 외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주의 통제와 주의 이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도에 따른 인지 상황을 선택하고 구성된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계획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인지조절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며 교정과 조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오도희, 2012; 이정란, 2003).

정서조절은 아동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적 경험 및 정서 표현을 통해 영향을 주는 자극과 내적인 정서 상태를 통제, 조정, 변경하여 정서적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김은숙, 2008; 정은주, 2005). Kopp(1982)은 자기조절력을 행동을 조절하고 지연하며 정서나 각성의 세기를 조절하는 등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정서조절의 용어로 대체하기도 한다(양옥승, 2006). 이에 따르면 정서조절은 영유아가 사회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인내하고 조절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지각하게 되고 내면을 통제, 조절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 반응을 정서 인식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행동, 표정 등을 단서로 정서 상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문성진, 2008).

종합하면 자기조절력은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영유아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영아의 자기조절력 관련 선행연구

영아의 자기조절력은 다양한 변인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

자기조절력은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화, 2017; 김선화, 2011; 이혜림, 2015).

부모 변인에 따라서도 영아의 자기조절력은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강영순, 2014; 이성주, 2017). 자녀를 양육할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날수록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에 제한을 제공하는 것은 영아가 스스로 인내하고 계획하는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라,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인지 및 정서를 조절하는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력은 기관에서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경험하는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교사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해주면 영아의 자기조절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화, 2017; 이선영, 2006; 이은정, 2011).

기관에서의 오감을 활용한 명상활동과 식재료를 활용한 오감놀이, 그림책을 활용한 감각활동 등 영아의 감각 활동은 자기조절 및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16; 김은정, 2016).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과 한국 음악 감상 및 놀이, 노래 부르기에 기초한 감성교육 활동 등 음악활동은 영아의 자기정서, 타인정서 인식과 만

족지연, 순응, 대처 등 정서표현 발달과 자기조절 및 인지·정서 조절 발달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은미, 2011; 왕유정, 2013; 윤미, 2013; 장지은, 2017). 노래그림책 읽기활동과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를 경험한 영아들은 인지조절과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연적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도 영아의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인지 및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희, 2017; 심규선, 2016; 주향희, 2016).

영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으면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험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밑바탕이 되어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양옥승, 2006; 허정경, 2003). 그러나 자기조절력이 낮으면 행동이 충동적이고 분노를 자주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공격성, 산만함, 과잉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원, 2004; 엄성애, 2003; 허정경, 2003). 또한 자기조절력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 계획, 문제 해결 및 사회적 리더십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현미 외, 2009; 신현숙, 2006; 유연옥, 2012; 이명진, 2011; 임은경).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영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부모와 교사, 영아기의 경험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를 통해 영아와 자기조절력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4. 영아의 놀이성

1) 놀이성의 개념

놀이는 영아의 본성이자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영아는 놀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출하며 반성적 사고와 자기조절을 발달시키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또래와의 놀이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Sutton-Smith & Rosenberg, 1961). 놀이를 통해 생각 하고 느끼며 반성과 창조를 경험할 수 있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길 때 진심이 담기게 된다(한경애, 2007). 즉 놀이는 영아의 발달과 성장에 의미 있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영아는 놀이를 하면서 일어나는 내적동기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가 이루어지고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감을 조작하고 탐색한다(김민영, 2009). 이 때 영아의 놀이 모습을 관찰해보면 영아마다 놀이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아가 각자 갖고 있는 놀이성향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놀이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gers(1998)는 놀이성에 대하여 놀이를 할 때 나타나는 개인차가 놀이 성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놀이의 형태, 즐겨하는 놀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나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Sully(1902)는 놀이성에 대해 감정이 억제되어 있던 것을 해소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기초하는 놀이적 태도 혹은 놀이하려고 하는 기분으로 정의하였고, Dewey(1933)는 놀이를 통해 자아발전과 발달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행동의 결과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개방적인 마음이라고 하였다(김영희, 2001 재인용). Erikson(1977)은 놀이성은 태도이자 삶의 질로 영아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놀이성의 발달은 향후 난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즐기도록 하는 태도를 갖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놀이성은 영유아들이 놀이를 놀이답게 해주는 잠

재적 힘이자 성향이며 유아들이 놀이하는 방식, 선호, 상호작용의 내용에서 개별적 차이를 보이는 놀이에 대한 질적 특성을 의미한다(박정연, 2008). 또한 놀이성이 발달하면 놀이를 하면서 내적 동기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방면으로 놀이를 하고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감을 탐색하고 조작한다(김민영, 2009). 놀이성은 영유아가 놀이를 할 때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도이고 놀이성에는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 그리고 유머 감각이 포함된다(허윤선, 2006).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하면 놀이성은 영유아가 놀이를 하게끔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이자 성향, 태도의 성격적 차원으로, 놀이의 다양한 특성들 중 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놀이성의 하위요인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처음으로 개발한 Lieberman(1966)은 놀이성의 구성 요소를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총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윤상인, 2011).

첫째,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보이는 신체적 활동이다. 신체적 자발성에는 놀이를 하면서 신체의 각 기관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신체의 전체, 혹은 일부를 움직이는 정도와 민첩성, 유연성, 정확성, 힘 등의 운동기능의 활동 정도가 포함된다(허윤선, 2006). 영유아는 동적인 표현으로 신체를 사용하여 쉬운 동작부터 힘겨운 동작까지 해내는 반복을 통해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며 행동이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며 신체적 자발성이 발달된다(단현국, 1991).

둘째, 사회적 자발성은 영유아가 속한 놀이집단에서 또래와 협력하고 협응하며 협동하는 등 함께 놀이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를 사귄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놀이감을 함께 나누는 등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허윤선, 2006). 놀이를 통해 또래와 관계를 맺어가는 기회를 경험하면서 규칙을 지켜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사회적 자발성이 발달하고 또래 안에서 타인에게 쉽게 다가가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성을 갖게 되며 자기 존중감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이재은, 2006).

셋째, 인지적 자발성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융통적인 생각을 해내는 정도이다. 같은 놀이 안에서 다른 또래와 다른 생각을 해내거나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탐색적인 행동과 놀이 간에 관련이 있다(허윤선, 2006). 놀이를 통한 탐색적 행동은 놀이에서 흥미로운 것을 탐색하여 친숙함을 갖게 되고 애매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며 단순함과 복잡함을 반복하여 조작하면서 사고의 틀이 넓어지게 되고 반복되어 놀이에 재현되고 놀이성에 반영된다(유애열, 1994).

넷째,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 과시, 열성, 기쁨, 즐거움 등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흥미로운 것에서 시작하여 익숙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 열정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이화용, 2012). 또한 즐거움의 표현은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보여진다. 즐거움의 표현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놀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겨 본질적인 기쁨을 준다(신은수 외, 2004).

다섯째, 유머감각은 장난스럽고 우스우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하고 익살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잘 웃는 것이다(장영숙, 조혜정, 2006). 동물이나 다른 유아, 성인 등의 모습을 흉내 내어 또래를 즐겁게 하는 행동

과 다른 유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웃는지, 다른 유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하는지가 포함되며 놀이할 때 장난을 많이 하고 잘 웃는다(허운선, 2006). 놀이를 하며 상황 속에서 유머가 나타나는 것을 당연히 볼 수 있고 유머 감각은 영유아가 발달해 감에 따라 놀이 안에서 확장되며(문연희, 2013) 유머 감각은 영유아 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이화용, 2012).

종합하면 놀이성은 놀이를 할 때 나타나는 신체, 사회, 인지의 발달적 구성요인과 즐거움과 유머의 정서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

3) 영아의 놀이성 관련 선행연구

영아의 놀이성은 먼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아의 놀이성이 남아의 놀이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회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주, 2017).

영아의 놀이성은 기질과 기관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받아 순한 기질의 영아가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까다로운 영아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기관에서 그림책 읽기를 활용한 감각활동을 경험한 영아는 놀이성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놀이교수 효능에 대한 신념과 놀이교수 결과에 기대가 높을수록 영아의 놀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화, 2011; 이미숙, 2017).

놀이성은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 영아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감정표현이 자유롭고 풍부한 정서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서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현, 2002). 영아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를 통해 경험한 여러 감정이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하나, 2015; 백수정, 2003). 또한 놀이성이 높게 나타나면

놀이기술이 풍부하여 또래 관계에 적극적이고 또래에게 놀이 친구로서 유능하게 작용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은, 2006).

영아의 놀이성은 부모에게서도 영향을 받는다. 먼저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고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발달적 지지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높게 나타날수록 영아의 놀이성과 신체, 사회,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놀이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가 높을 때도 영아의 놀이성이 높게 나타났다(박미경, 2015; 전영주, 2017).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이 많이 나타날수록 영아의 놀이성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신체적 자발성이 낮게 나타났다(심용분, 2011; 전영주, 2017). 즉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영아로 하여금 활발하도록 하고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며 영아의 놀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적 태도는 신체적 자발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S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2세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만 2세가 재원중인 어린이집 17곳을 임의표집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2세 영아 31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아 부모에게는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관한 질문지를, 교사에게는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관한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N=31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영아 성별	남아	176	56.4
	여아	136	43.6
영아 연령	37~40개월	89	28.5
	41~44개월	128	41.1
	45~48개월	95	30.4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81	26.0
	2~3년대학졸업	122	39.1
	4년대학졸업	97	31.1
	대학원졸업	12	3.8
어머니 취업여부	전일제취업	83	26.6
	시간제취업	76	24.4
	전업주부	153	49.0
아버지 연령	30세이하	23	7.4
	31~35세	99	31.7
	36~39세	131	42.0
	40세이상	59	18.9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72	23.1
	2~3년대학졸업	92	29.5

	4년대학졸업	126	40.4
	대학원졸업	22	7.1
아버지 취업여부	전일제취업	308	98.7
	시간제취업	4	1.3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영아 부모에게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측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영아가 주로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교사에게는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교사가 기관에서 영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경험과 다수의 영아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의 행동 특성에 대하여 부모보다 규준적인 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교사에게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대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배문주(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태도는 애정적·거부적·자율적·통제적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5단계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 요인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위 문항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 하위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애정적 태도	1, 5, 7, 23, 24, 25, 26, 27, 28, 35, 36, 37	12	.83
거부적 태도	3, 4, 14, 16, 17, 19, 29, 30, 31, 32, 33, 34	12	.79
자율적 태도	2, 6, 11, 12, 13, 15, 38, 39, 40, 41, 42, 43	12	.89
통제적 태도	8, 9, 10, 18, 20, 21, 22, 44, 45, 46, 47, 48	12	.87
전체		48	-

2)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본 연구에서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에서 개발한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금단, 내성, 문제의 요인 점수에 따른 사용자군은 고위험, 잠재적,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눌 수 있으나 현재는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가 영아를 관찰한 것을 토대로 평정하는 방법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역문항과 순문항으로 짝을 이루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짝계산으로 점수가 7점 이상이 나올 경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척도 기준으로 순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이고 역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4점)에서 매우 그렇다(1)점까지 순문항의 반대로 점수가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재 실시가 요구되는 응답지를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나

타나지 않아 사용자군을 나누지 않고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3) 영아의 자기조절력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호인(2010)이 개발한 ‘2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평정 척도’의 일부인 자기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 척도는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조절은 인지와 정서 조절을 포함한다. 도구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 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은 문항 ‘스스로 놀이를 시작한다’, ‘놀이 중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지만 다른 장난감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등의 영아가 행동을 적절히 선택하고 결정하여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인지조절과 문항 ‘블록을 끼우려다 또래와 싸워서 화가 나지만 다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또래와의 놀이를 원하나 친구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슬퍼한다’ 등의 스스로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조절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력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인지 조절 정서 조절로 구분하지 않고 자기조절력으로 측정하였다.

4) 영아의 놀이성

놀이성 척도는 Lieberman(1966)가 정의한 것을 기초로 Barnett(1991)가 제

작한 유아 대상의 놀이성 척도인 CPS(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유애열(1994)이 번안하고 윤상인(2011)이 영아용 척도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은 신체적 자발성 4문항, 사회적 자발성 5문항, 인지적 자발성 4문항, 즐거움의 표현 5문항, 유머감각 5문항으로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총 2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항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표 3> 놀이성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신체적 자발성	4	1, 6, 11, 16	.82
사회적 자발성	5	2, 7, 12, 17, 21	.77
인지적 자발성	4	3, 8, 13, 18	.74
즐거움의 표현	5	4, 9, 14, 19, 22	.82
유머감각	5	5, 10, 15, 20, 23	.82
전체	23		.93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문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만 2세 영아 부모와 교사를 각 5명씩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장의 이해도, 표현문항의 적절성, 검사에 필요한 소요 시간 및 회수 기간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검사 소요 시간은 평균 10분이었고 회수 기간은 4일이었다. 회수된 후에는 유아

교육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2) 본 연구

본 연구를 위해 만 2세 영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17곳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약 8주에 걸쳐 기관에 전화하여 협조 및 동의를 구하였고 직접 배부 및 회수하였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아 340명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각각 34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 후 집계 결과 부모용은 334부, 교사용은 336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한 영아에 대하여 네 가지 도구가 짝을 이루기 때문에 답변이 미완료 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짝을 이루지 못하는 질문지는 제외하여 최종 사용한 질문지는 교사용과 부모용 각각 312부로 91.7%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사용되는 연구도구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관계를 밝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만 2세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나타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나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양육태도는 5점 척도로, 애정적 태도의 평균은 3.95($SD = .44$), 자율적 태도의 평균은 3.30($SD = .65$), 통제적 태도의 평균은 3.21($SD = .67$), 거부적 태도의 평균은 2.64($SD =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정도의 평균은 1.83($SD = .44$)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력 전체의 평균은 3.35($SD = .53$)으로 중간 이상의 값을 보여주었다. 놀이성은 신체적 자발성의 평균은 3.90($SD = .74$), 즐거움의 표현의 평균은 3.67($SD = .67$), 놀이성 전체의 평균은 3.57($SD = .56$), 사회적 자발성의 평균은 3.49($SD = .64$), 인지적 자발성의 평균은 3.43($SD = .68$), 유머감각의 평균은 3.41($SD = .72$)로 모두 중간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

(N=312)

변인		최소값	최대값	M(SD)	
부모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2.58	5.00	3.95(.44)
		거부적 태도	1.50	3.92	2.64(.48)
		자율적 태도	1.75	4.75	3.30(.65)
		통제적 태도	1.50	4.58	3.21(.67)
스마트폰 사용정도		1.13	2.87	1.83(.44)	
자기조절력		1.50	4.94	3.35(.53)	
영아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2.00	5.00	3.90(.74)
		사회적 자발성	1.80	5.00	3.49(.64)
		인지적 자발성	1.25	5.00	3.43(.68)
		즐거움의 표현	2.20	5.00	3.67(.67)
		유머감각	1.60	5.00	3.41(.72)
		전체	2.09	4.87	3.57(.56)

2.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과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자기조절력, 놀이성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의 상관관계의 범위는 .32 ~ -.04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영역인 통제적 태도와 스마트폰 사용정도($r=.32$, $p<.001$)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율적 태도와 스마트폰 사용($r=-.31$, $p<.001$)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통제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력 전체의 상관관계 범위는 -.07~ .12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부모의 애정적 태도와 자기조절력($r=.12$, $p<.05$)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놀이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애정적 태도와 사회적 자발성($r=.16$, $p<.01$), 자율적 태도와 신체적 자발성($r=.13$, $p<.01$), 자율적 태도와 즐거움의 표현($r=.19$, $p<.01$), 통제적 태도와 유머($r=.12$, $p<.05$)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태도와 사회적 자발성($r=-.13$, $p<.05$), 통제적 태도와 신체적 자발성($r=-.15$, $p<.01$), 통제적 태도와 즐거움의 표현($r=-.20$, $p<.001$)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사회적 자발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거부적 태도는 영아의 사회적 자발성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자율적 태도는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적 태도는 영아의 유머 감각을 높이고,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자기조절력($r=-.16, p<.01$)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섯째,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놀이성($r=-.12, p<.05$)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r=-.15, p<.01$)과의 관계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놀이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놀이성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여섯째, 자기조절력과 놀이성($r=.39, p<.001$)과의 관계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조절력과의 관계를 놀이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자발성($r=.49, p<.001$), 인지적 자발성($r=.39, p<.001$), 즐거움의 표현($r=.27, p<.001$), 유머감각($r=.26, p<.001$), 신체적 자발성($r=.20, p<.001$) 순으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력이 높은 영아일수록 놀이성 및 하위요인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부모의 양육태도,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과 놀이성과의 상관관계

(N=312)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애정적 태도	1											
부모의 양육 태도												
② 거부적 태도	-.54** _*	1										
③ 자율적 태도	.20***	-.08	1									
④ 통제적 태도	.15*	.12*	-.65** _*	1								
⑤ 핸드폰사용	.01	-.04	-.31** _*	.32***	1							
⑥ 자기조절력	.12*	-.07	.09	-.02	-.16**	1						
⑦ 신체적 자발성	.07	-.07	.14**	-.15**	-.07	.20***	1					
⑧ 사회적 자발성	.16**	-.13*	.10	-.06	-.07	.49***	.45***	1				
⑨ 인지적 자발성	-.00	.06	-.03	.03	-.10	.39***	.40***	.69***	1			
⑩ 즐거움의 표현	.03	.05	.19**	-.20** _*	-.15**	.27***	.62***	.63***	.67***	1		
⑪ 유머감각	-.01	.13*	-.07	.12*	-.07	.26***	.48***	.58***	.64***	.67***	1	
⑫ 전체	.06	.01	.08	-.06	-.12*	.39***	.72***	.82***	.82***	.88***	.84***	1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투입한 모델1의 설명력은 2%를 설명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조절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2의 경우 4%의 설명력이 있고 추가로 투입한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beta=-.15, p<.05$)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지면 자기조절력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통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β	t	B	β	t
자기 조절력	상수	2.68		5.61	3.06		6.15
	애정적	.10	.09	1.07	.09	.07	.94
	거부적	-.02	-.02	-.25	-.04	-.04	-.51
	자율적	.07	.09	1.08	.06	.07	.88
	통제적	.02	.03	.33	.05	.06	.73
	스마트폰 사용정도				-.17	-.15	-2.52*
			$R^2 = .02, F=1.49$			$R^2 = .04, F=2.48^*$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놀이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놀이성 및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놀이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β	t	B	β	t
놀이성 전체	상수	2.90		5.64	3.11		5.78
	애정적	.16	.12	1.55	.15	.12	1.48
	거부적	.11	.09	1.26	.10	.08	1.12
	자율적	.00	.00	.04	-.01	-.01	-.08
	통제적	-.08	-.09	-1.02	-.06	-.07	-.80
	스마트폰 사용정도				-.10	-.08	-1.31
		$R^2 = .01, F=1.13$			$R^2 = .02, F=1.25$		
신체적 자발성	상수	3.79		5.64	3.79		5.38
	애정적	.15	.09	1.14	.15	.09	1.14
	거부적	-.01	-.00	-.04	-.00	-.00	-.04
	자율적	.02	.02	.20	.02	.02	.20
	통제적	-.17	-.15	-1.79	-.17	-.15	-1.77
	스마트폰 사용정도				.00	.00	.01
		$R^2 = .03, F=2.57^*$			$R^2 = .03, F=2.05$		
사회적 자발성	상수	2.96		5.09	3.10		5.09
	애정적	.20	.13	1.68	.19	.13	1.64
	거부적	-.06	-.05	-.66	-.07	-.05	-.73
	자율적	.03	.03	.33	.02	.02	.27
	통제적	-.05	-.06	-.65	-.04	-.05	-.51
	스마트폰 사용정도				-.07	-.05	-.77
		$R^2 = .03, F=2.59^*$			$R^2 = .03, F=2.19$		
인지적 자발성	상수	2.96		4.75	3.32		5.11
	애정적	.09	.06	.70	.07	.05	.60
	거부적	.12	.09	1.19	.10	.07	1.00
	자율적	-.04	-.04	-.47	-.06	-.05	-.63
	통제적	-.02	-.02	-.18	.01	.01	.12
	스마트폰 사용정도				-.17	-.11	-1.86
		$R^2 = .01, F=.43$			$R^2 = .02, F=1.03$		
즐거움	상수	2.83		4.76	3.03		4.87

의 표현	애정적	.21	.14	1.76	.20	.13	1.69
	거부적	.21	.16	2.20*	.20	.15	2.08*
	자율적	.04	.040	.47	.03	.03	.37
	통제적	-.21	-.21	-2.49	-.20	-.20	-2.28
	스마트폰 사용정도				-.09	-.06	-1.10
		$R^2 = .06, F=5.01^{***}$			$R^2 = .07, F=4.25^{***}$		
유머 감각	상수	2.13		3.29	2.47		3.65
	애정적	.13	.08	1.04	.12	.08	.95
	거부적	.24	.17	2.29*	.23	.15	2.12*
	자율적	-.04	-.03	-.40	-.05	-.05	-.54
	통제적	.07	.07	.77	.10	.09	1.03
	스마트폰 사용정도				-.16	-.10	-1.68
	$R^2 = .03, F=2.51^*$			$R^2 = .04, F=2.59^*$			

* $p < .05$, ** $p < .01$, *** $p < .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놀이성 전체,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에 대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투입된 모델1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추가로 투입된 모델2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 전체의 하위영역인 즐거움의 표현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투입된 모델1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로 나타났으며 거부적 양육태도($\beta = .16, p < .05$)가 정(+적인 영향을, 반면에 통제적 양육태도($\beta = -.21, p < .05$)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추가로 투입된 모델2의 경우 설명력은 7%로 나타났고 추가로 투입된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즐거움의 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즐거움의 표현도 높아지고 반면에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즐거움의 표현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유머감각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투입된 모델1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3%로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beta=.17, p<.05$)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추가로 투입된 모델2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4%로 나타났고 추가로 투입된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유머감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1.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평균값이 중간 이상의 값을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애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고 이는 애정, 자율, 통제, 거부의 순으로 나타난 양은주(2010)과 허영순(2010)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였다. 유아와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 장솔지(2017)와 강영순(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평균이 애정, 자율, 통제, 거부 순으로 나타났고 김경선(200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순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 자율, 통제, 거부 순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만 2세 영

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평균은 1.83으로 나타났다. 척도가 4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영아가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기관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만 1,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중독을 연구한 김정아(2017)의 연구에서 평균이 1.62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였다. 비슷한 연구로 유아의 스마트폰 몰입정도에 따른 자기조절력과 또래유능성을 분석한 김희(2017)의 연구에서는 1.96,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을 연구한 김서희(2016)의 연구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 평균이 2.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장솔지(2017)의 연구에서는 2.88로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유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의 자기조절력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 3.35로 중간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선화(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의 평균이 3.10, 김병화(2017)의 연구에서는 3.70, 이혜림(2015)의 연구에서는 3.39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넷째, 영아의 놀이성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3.57로 중간 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자발성은 3.90, 즐거움의 표현은 3.67, 사회적 자발성은 3.49, 인지적 자발성은 3.43, 유머감각은 3.41로 하위영역 모두 중간 이상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윤상인(2010)의 연구에서 놀이성 전체 및 하위영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박미경(2015)의 연구에서 신체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순으로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김민영, 손수민(2009)의 연구와 김선화(2011)의 연구에서는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 신체적 자발성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2세 영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통제적 태도와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정적 관계로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적 태도와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지고 부모의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 중 자율적 태도와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부적 관계로, 통제적 태도와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정적 관계로 나타난 장술지(201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고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이 부적 관계로 나타난 김정아(2017)의 연구와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연구한 나용선(2013)의 연구 결과에서 아이에 대한 부모의 합리적 지도가 부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아질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애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강영순(2014)과 이성주(201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놀이성 및 놀이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애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발성이 낮게 나타나고, 부모의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즐거움의 표현과 신체적 자발성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유머감각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율적 태도가 즐거움의 표현과 정적 상관관계, 통제

적 태도가 즐거움의 표현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광희(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면 영아의 놀이성이 높아지는 박미경(2015)과 전영주(2017)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두 변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넷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자기조절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조절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및 자기조절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이수기, 이현경(2014)과 최미영(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즉 영아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조절력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다섯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놀이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놀이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윤나, 박희숙(2016)의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놀이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즉, 스마트폰은 영아에게 놀이 대신 주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 영아가 전인발달을 위해 놀이를 경험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영아가 놀이를 본질적으로 즐기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추가됐을 때는 설명력이 미미하게 올라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지면 영아의 자기조절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놀이성 및 놀이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은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양육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통제적 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즐거움의 표현도 높아지고,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즐거움의 표현이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즐거움의 표현에 대하여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유머감각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지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유머감각도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가 전체 변인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얻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영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함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애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 2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의 평균은 중간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통제적 태도는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높이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자율적 태도는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는 스마트폰 사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따라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는 영아의 자기조절력이 증가하도록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부모가 영아를 애정적인 태도로 양육하면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이 높아지고, 부모의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사회적 자발성이 낮게 나타나고, 부모의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하면 영아가 놀이를 하며 나타내는 사회적 자발성과 신체적 자발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즐거움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영아를 통제적 태도로 양육하면 영아의 신체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모는 영아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해야함을 볼 수 있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이 낮게 나타나고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즐거움의 표현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추가되었을 때 자기조절력에 영향이 나타났으나 미미한 결과로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주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아의 놀이성과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가 영아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즐거움의 표현에 영향이 있어 거부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즐거움의 표현을 높이고 통제적 양육태도는 즐거움의 표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양육태도는 유머감각에 영향을 주어 거부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유머감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관계에서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이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

마트폰 사용이 자기조절력과 놀이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2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현재는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유아 대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도구 선정의 어려움은 변인 간 영향을 알아본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아 대상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만을 고려하여 자기조절력과 놀이성을 연구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다양한 변인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영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대해 질문지를 통해 연구하였는데 질문지를 통한 측정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반적 경향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영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를 기초로 부모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양육태도와 더불어 바람직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아기에 발달하는 다른 요인들을 연구하여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에 익숙한 영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등 교육적인 측면의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정(2013).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스트레스가 영아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순덕(201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변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순(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은(2016).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선호도별 내용 및 UX 차이분석.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양, 박창호(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31(2), 563-580.
- 고영광(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형운(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정(2014). 만 2세반 영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9(1), 213-242.
- 권연정, 이승연(2013). 만 2세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지도 양상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73-109.
- 금정연(2017). 모의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 유아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16). 명상활동이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

-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선(2006).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간 대인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자(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2009).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보육시설 기관적응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 손수민(2014). 만 2세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어린이집 경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1), 287-308.
- 김병화(2017).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영아 및 교사 관련 변인의 영향 연구.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미(2009).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학위논문.
- 김보영(2005). 어머니 양육태도, 영아의 성(性), 보육기간에 따른 영아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희(2016).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2011). 만 2세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놀이성 및 사회정서발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1996). 부모의 수용도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3(1), 67-105.
- 김성일(1997). 부모의 수용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5(3), 39-65.

- 김소희(2016).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및 교사와의 애착 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훈(201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업 몰입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연(2015). 또래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나, 박희숙(2016).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교육학회, 20(4)**, 337-353.
- 김은경(2018). 일부 특성화고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증, 학업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련성. 경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08).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6). 가정과 연계된 식재료를 활용한 오감프로그램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2013). 영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01). 성격유형과 놀이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놀이치료 연구, 4(1)**, 31-40.
- 김정아(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민, 문정주, 권미량(2014). 유아의 스마트기기 중독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1)**, 199-219.

- 김주아(2013). 영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어린
이문학교육연구**, 14(4), 545-569.
- 김주영(2011).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측정도구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하나(2015). 어머니의 놀이성과 영아의 놀이성 및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연
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2013).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어린이집에서 나타
나는 영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한희(2017). 노래그림책 읽기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행숙(2010). 유아의 컴퓨터 사용실태 및 부모와 교사의 인식비교. 경남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2009).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양육태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16). 영아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457-485.
- 김호인(2010). 2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평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2017). 유아의 스마트폰 몰입정도에 따른 자기조절력과 또래유능성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18).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자기결정
성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양균(2006). 영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용선(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3), 32-53.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2009).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81-292.
- 단현국(1991). 유아놀이지도. 서울: 대한교과서
- 담 영(2017). 해외직접구매에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에 대한 유통채널 간 비교 연구 - 웹 사이트와 메신저 APP 사용을 기반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 산 백 과 (20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937&cid=40942&categoryId=32849#_datalab 2018년 04월 27일 인출 .
- 류미향(201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어머니 인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탐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6, 307-329.
- 류은미(2011).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자혜(2002).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아라(2017).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탐색.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8(4), 691-698.
- 문성진(2008).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연희(2013).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영아의 놀이성과 음악적 성향에 대

- 한 관계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15). 아버지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라(2017).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15). 자기통제 훈련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기(2010). 디지털세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일러스트레이션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민(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연(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2012).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미(2014). 영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효국(2013). 만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은혜(2014).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다사용: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수정(2003). 부모 화합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성(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과 스마트폰 사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창민, 이종훈 외(2012).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한국형 청소년 자기행동형가척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8(2).
- 손명원(2014). 스마트폰 이용, 감성지능, 자기통제력 및 심리적분리가 정서적 소진과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수, 유영의, 박현경 (2004). 유아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과 놀이 운영 실제 신념에 관한 도구 개발연구. **유아교육연구**, 24(1), 49-69.
- 신현숙(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2004). 유아기 자기조절 평가 척도 개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규선(2016). 우연적 표현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이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용분(2011).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영(2003). 전자책 콘텐츠로서의 멀티동화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희(2013). 어머니 양육태도 및 어머니 자녀 의사소통이 유아의 게임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숙(2002).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준, 박가람, 이희영(2013).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연구를 위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제작.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26(2), 99-106
- 양문정(2014).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 또래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2006). 3-6 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61-187.
- 양옥승,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방법연구**, 15(2), 145-161.
- 양은주(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 교사의 애착형성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선경(2016). 교감형 연출 방식을 활용한 유아용 앱 디자인 사례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성애(2003). 영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 영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의 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도희(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력,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경(2016).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유정(2013). 영아를 위한 음악활동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성두, 김임렬, 이민규(2015). 자기조절 연구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279-303
- 원소희(2018).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개인 내적 심리요인 및 건강

- 상 문제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수연(2015). 유아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정서지능 차이.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 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정(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 미(2013). 한국 음악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인(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놀이성 및 리더십과의 관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해(2014). 가정에서의 유아 전자 그림책 사용 실태 및 인식 조사.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2011). 자기조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39, 161-193.
- 이미라(2017).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육아정보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2017). 그림책을 활용한 감각활동이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희(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의 개인 변인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주(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2세 유아의 또래관계와 자기조절능력에

-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기, 이현경(2014).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발달수준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3(3), 227-243.
- 이연실(2016).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태도에 대한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임(2013). 영아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어머니의 인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6).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석, 성영화(2012).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어머니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6(1), 20-38.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미(2006). 유아 리더십과 부모 양육태도 관계 분석.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4). 형제유무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11).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한국자치행정 학보**, 25(2), 319-337.
- 이은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서울:육아정책연구소
- 이주화(2015). 유아의 행복감에 부모 양육태도, 교사-유아관계 및 또래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애(2013).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및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여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나(2017).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2015).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용(2012). 영아의 놀이성과 기질 및 사회정서발달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희(2015). 유아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내용 및 구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정(2016).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특성(기질, 자기통제,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경, 유연옥(201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리더십과 자기조절력의 관계. **아동교육**, 21(1), 211-224.
- 장솔지(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 조혜정(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251-268.

- 장은정(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은(2017). 노래 부르기에 기초한 감성교육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201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05).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명숙(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능력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2016). 유아 자기조절 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497-521.
- 진경숙(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보육교사-영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2013). 한국 스마트뱅킹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의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희(2017).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2006). 유아의 놀이성과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향희(2016).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2016). 스마트폰 과몰입에 따른 유아의 발달수준.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 박충선, 김갑숙, 도미향, 최선남, 김영희(2006).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최유경(1999). 부모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의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애(2007). 호모루텐스. 서울: 그린비
- 한국정보화진흥원(2015).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관찰자 척도]
- 한미경(2015).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심(2016). 유아용 증강현실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 디자인 : 주도적 놀이 특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순(2010).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 : 양육태도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선(2006). 유아의 놀이성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경(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된 변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지영(2016).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수민(2011). 자기주도학습지원용 유아 멀티미디어북 스마트폰 앱의 설계 및 구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승일(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련(2016). 주거환경,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태경(2013).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실태와 몰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2), 277-313.
- B. Sutton-Smith and B. G. Rosenberg (1961). Sixty Years of Historical Change in the Game Preferences of American Children.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74(291), 17-46
- Barnett, L. A.(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W.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 Bodrova, E., & Leong, D. J. (1996). *Tools of mind : A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Erikson, E. H. (1977). *Toy and reason*. New York: Norton.
- Fishbein, M. & Aj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chsetts: Addison-Wesley.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ieberman, J. N. (1966). Playfulness : an attempt to conceptualize a quality of play and of the player. *Psychological Reports*, 19(3), 1278
- Rogers, C., Impara, J., Frary, R., Harris, T., Meeks, A., Seamnic-Lauth,S., & Reynolds, M.(199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lay & Culture Studies*, 1, 151-168.
- Rohner, R. P. & A. Khaleque(Eds.)(2005).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nd Acceptance Rejection*.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ully, J. (1902). *An essay on laughter: Its forms, its causes, its development, and its value*. New York, NY, US: Longmans, Green and Co.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xford, England: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

ABSTRACT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Smartphone Use of Infants on the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two-year-old Infants

Yu, Eun Hy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infants' smartphone use on the self-regulation and playability of two-year-old infants. To this end, general tendency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infants' smartphone use,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two-year-old infants was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was analyzed. Then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infants' smartphone use on the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two-year-old infants were investigated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parenting attitude, use of smartphone,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two-year-old infants?
2. What are the relationships of parenting attitude, use of

smartphone,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two-year-old infants?

3. What are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use of smartphone on their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 1) What is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use of smartphone on their self-regulation?
 - 2) What is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use of smartphone on their playfulness?

The subjects were 312 two-year-old children in day care centers in S city in Chungcheongnam-do. Parents and teachers of the children were surveyed. To measure the parenting attitude, questionnaire developed by Schaefer (1959) and used by Bae Munju (2005) were used. To measure the use of smartphone of infants, 'The Smartphone Addiction Observer Scale for Infants and Children' develop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was used. To measure the self-regulation of infants, self-regulation part in the '2-year-old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rating scale' by Kim Hoin (2010)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of playfulness of infants, the 'playfulness Scale' developed by Barnett(1991) and modified by Yun Sangin for children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s using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arenting attitude, infants' smartphone use,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martphone use on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s.

First, regarding the parenting attitudes, it was higher in the order of affection, autonomy, control, and rejection. Infants' smartphone use was moderate (1.83 points / 4 points).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infant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middle. The sub-factors of infants' playfulnes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physical spontaneity, expression of joy, social spontaneity, cognitive spontaneity, and sense of humor, all of which were fair as the value higher than middle.

Second, among parenting attitudes, affective attitude and autonomous attitude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martphone use. As affectionate and autonomous attitudes were higher, the degree of smartphone use decreased. Affective attitude and autonomous attitud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As affectionate and autonomous attitudes were higher,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tended to increase. Among parenting attitudes, rejecting attitude and the controlling attitud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use, which means when parents showed more rejecting attitude and the controlling attitude, children tended to use smartphone more. Rejecting attitude and the controlling attitude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pontaneity, expression of joy and physical spontaneity from the playfulness. It means that as parents showed more rejecting and controlling attitudes, children tended to show lower social spontaneity, expression of joy and physical

spontaneity. It was found that sense of humor had positive correlation. In other words, when they showed more rejecting and controlling attitudes, children's sense of humor tended to become higher.

Third, when looking into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and smartphone use of children on the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childre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very low effect. Parenting attitude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lf-regulation. When the degree of smartphone use was added, self-regulation was affected but it was not big. Out of parenting attitudes, rejecting and controlling attitudes had low effects on expression of joy, which was a sub-factor of the playfulness of children. Rejecting attitude was found to affect sense of humor but the level of effect was low. The use of smartphone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effects.

Conclusively,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and smartphone use of infants on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of infants were very low. However,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was meaningful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attitude, smartphone use of infants, self-regulation and playfulness.

부 록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부모 양육태도 및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영아의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

<부록 1>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관한 동의서 및 질문지(부모용)

<p>안녕하십니까?</p> <p>자녀 교육과 양육에 늘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정성에 감동과 경의를 표합니다.</p> <p>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 2세 영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하여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편지를 드립니다.</p> <p>질문지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p> <p>자녀와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부분,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관한 부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관한 부분입니다.</p> <p>각 문항은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평소 생각과 자녀의 행동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 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응답 내용이 노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p> <p>자녀 교육과 양육에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 전 홍 주 연구자 : 유 은 혜</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위의 내용과 연구자의 설명을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11.</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참여자: (인)</p>

▷ 다음은 부모님과 자녀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으신 후 해당하는 칸에 (✓)를 하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성별은? 남(), 여()

2. 자녀의 연령은? 만 _____ 세(_____ 년 _____ 월)

3. 자녀수는 ? _____ 명

4. 어머니의 연령은? 만 _____ 세

5.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 _____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② 대학 졸업(2,3년제)
_____ ③ 대학교 졸업(4년제)
_____ ④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6.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 _____ ① 전일제 취업
_____ ② 시간제 취업
_____ ③ 전업주부

7. 아버지의 연령은? 만 _____ 세

5.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 _____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② 대학 졸업(2,3년제)
_____ ③ 대학교 졸업(4년제)
_____ ④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7. 아버지의 연령은? 만 _____ 세

8.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 _____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_____ ② 대학 졸업(2,3년제)
_____ ③ 대학교 졸업(4년제)
_____ ④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9.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 _____ ① 전일제 취업
_____ ② 시간제 취업
_____ ③ 전업주부

▷다음은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 주시는 편입니까?					
2. 부모님께서서는 사물에 대한 판단을 잘하고 이해도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행동을 못 본체 할 수 없어 야단을 치거나 비평을 하시는 편입니까?					
4.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입니까?					
5. 자녀에게 문제되는 행동이 있을 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십니까?					
6.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끄집어 내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7.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하여 도움을 주십니까?					
8.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와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나쁜 친구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편입니까?					
9.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놀거나 공부를 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십니까?					
11.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든 일이라도 혼자서 하도록 하십니까?					
12.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 하도록 자유를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3.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리를 찾아 놀게 하는 편입니까?					
14.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하는 편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러함	매우 그러함
15.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다른 유아나 어른들과 잘 사귀다고 생각하십니까?					
16. 부모님께서서는 직장(가정)일을 하다가 권태롭거나 지겹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17.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18.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에게 가능한 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19.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20.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편입니까?					
21.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보는 편입니까?					
22. 부모님께서서는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 부모님께서서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것이 꼭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해주십니까?					
24.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그림, 만들기 등)에 관심을 갖는 편입니까?					
25.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겉으로 잘 하십니까?					
26.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십니까?					
28.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이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까?					
29.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양육이 즐거울 때보다 짐스러운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0.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행동 및 태도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자녀가 속을 섞이는 행동을 보일 때 부모님께서서는 참으려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때가 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려함	매우 그려함
32.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33.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4.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시는 편입니까?					
35.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편입니까?					
36.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칭찬도 하시는 편이십니까?					
37. 부모님께서서는 어린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노는 방식으로 허물없이 함께 놀아 주십니까?					
38.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 부모님께서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독서도 하고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십니까?					
40. 부모님께서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및 여러 방면에 대해 폭넓게 흥미를 갖고 계십니까?					
41. 집이나 부모님을 떠나 자녀가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42. 부모님께서서는 자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시는 편입니까?					
43.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44.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5. 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장손’ ‘만딸’ 또는 집안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46. 자녀가 빠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7. 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48.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생각과 자녀의 행동을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앱에 빠져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2. 다른 어떤 놀이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3.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 궁리를 한다.				
4. 학교 또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녀오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는다.				
5.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보거나 학습을 할 때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다.				
6. 짜증이 나면 스마트폰부터 찾아서 켜려고 한다.				
7. 심하게 울고 있다가도 스마트폰만 보면 금방 그친다.				
8. 새 장난감을 사줘도, 금새 흥미를 잃고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9.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억울해 한다.				
10. 스마트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심하게 짜증을 낸다.				
11. 스마트폰을 그만 쓰라고 말하면 반항적으로 화를 낸다.				
12.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면 욕을 한다.				
13.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면 폭력을 행사한다.				
14.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초조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				
15.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그만 사용하라고 잔소리하는 횟수가 늘었다.				
17.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회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18. 스마트폰을 달라고 조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19.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스스로 그만둔다.				
20.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				
21.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눈이 아프다고 한다.				
22.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있어서 손목이 아프다고 한다.				
23. 스마트폰을 쓰느라 잠이 부족하다.				
24.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아이가 예전보다 난폭해졌다.				
25.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이나 등이 아프다고 한다.				
26.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27. 스마트폰을 하느라 가족행사(외출이나 외식 등) 참가를 꺼린다.				
28. 스마트폰을 볼 때는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29. 스마트폰으로 인해 아이가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다.				
30.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을 보아도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를 쓰지 않는다.				

*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영아의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에 관한 동의서 및 질문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영아 보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정성과 노고에 감동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 2세 영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하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편지를 드립니다.

질문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아와 선생님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부분,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부분,

영아의 놀이성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질문지는 정답이 있거나 옳고 그른 것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며, 선생님께서 학급 영아에 대해 평소 관찰하신 것을 기초로 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이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지도교수 : 전 홍 주

연구자 : 유 은 혜

본인은 위의 내용과 연구자의 설명을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 11.

연구참여자: (인)

▷ 다음은 선생님과 영아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으신 후 해당하는 칸에 (✓)를 하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_

2. 영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

_____ ② 여

3.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①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

_____ ② 대학 졸업(2,3년제)

_____ ③ 대학교 졸업(4년제)

_____ ④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_____ ⑤ 기타 _____

4. 선생님의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다음은 영아의 자기조절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영아의 모습을 관찰하신 것을 기초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칸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자기 조 절	인 지 조 절	1	교사가 다양한 모양 종이를 꺼내면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 종이를 선택할 수 있다.				
		2	바지를 혼자 입을 수 있으나 단추를 끼우거나 고리를 끼우는 것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스스로 놀이를 시작한다.				
		4	퍼즐이 잘 맞추어지지 않지만 계속 시도하여 결국 다 맞춘다.				
		5	교사가 그만 놀자고 하면 놀이를 중단한다.				
		6	다른 또래들이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인 교실에서 뛰어다니기, 소리 지르기 등을 할 때 따라하지 않는다.				
		7	놀이 중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지만 다른 장난감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8	간식시간에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차례를 기다린다.				
	정 서 조 절	9	교사가 지도하지 않을 때에도 기본생활습관을 지킨다.				
		10	등하원시 가방을 스스로 정리하려고 한다.				
		11	블록을 끼우려다 또래와 싸워서 화가 나지만 다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12	정리정돈, 순서기다리기, 게임규칙 지키기 등 스스로 놀이규칙을 잘 지킨다.				
		13	놀이 중 다쳤을 때, 아프지만 참는다.				
		14	또래와의 놀이를 원하나 친구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슬퍼한다.				
		15	그림을 그리다가 또래가 블록 영역에서 놀이하자고 권유할 때 그림을 다 그리고 이동하여 놀이한다.				
		16	친구가 크게 이야기해서 귀가 아프고 힘들 때 조용히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영아의 놀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영아의 놀이모습을 관찰하신 것을 기초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칸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놀이 활동을 할 때, 각 신체기관 간의 협응이 잘 된다.	1	2	3	4	5
2	놀이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수용한다.	1	2	3	4	5
3	놀이를 할 때, 자기의 독특한 놀이방법을 찾아낸다.	1	2	3	4	5
4	놀이하는 동안 즐거워한다.	1	2	3	4	5
5	다른 아이들과 우스운 소리를 내거나 표정, 몸짓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놀이하는 동안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인다.	1	2	3	4	5
7	또래친구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1	2	3	4	5
8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감을 사용한다.	1	2	3	4	5
9	놀이하는 동안 만족스러워한다.	1	2	3	4	5
10	놀이를 할 때 장난기가 많다.(유머감각)	1	2	3	4	5
11	놀이를 할 때 조용한 것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2	다른 아이들과 협동적으로 놀이한다.	1	2	3	4	5
13	놀이를 할 때 여러 종류의 역할들을 하고자 한다.	1	2	3	4	5
14	놀이에 열중한다.	1	2	3	4	5
15	재미있는 소리내기나 몸짓, 이야기를 잘 한다.	1	2	3	4	5
16	놀이(실내, 실외 모두)를 할 때 많이 움직인다. (예: 강충깡충 뛴다. 뛰어다닌다.)	1	2	3	4	5
17	다른 아이들과 놀이감을 나누어 함께 놀이한다.	1	2	3	4	5
18	놀이하는 동안 한 활동만 고집하지 않고 활동을 바꾸어가며 한다.	1	2	3	4	5
19	놀이하는 동안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한다.	1	2	3	4	5
20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잘 웃는다.	1	2	3	4	5
21	다른 아이들과 놀이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	2	3	4	5
22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한다.	1	2	3	4	5
23	놀이를 할 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재미있는 표정이나 행동을 한다.	1	2	3	4	5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